



Media 문의:  
Roberta Sklar, Communications Director  
917.704.6358 (cell), 646.358.1465 (office)  
rsklar@theTaskForce.org

**National Gay and Lesbian Task Force 전국 최대 규모의 아시아 태평양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성전환 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자료 발표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전통 문화의 달 기념**

*연구 자료, 걱정스러울 정도로 높은 차별 및 괴롭힘의 비율 발표*

증오 폭력과 괴롭힘, 대중 매체의 표현, 평등한 결혼 생활, 그리고 이민 문제 등을 커뮤니티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들로 나타나

*보고서와 관련 자료 다운로드*  
[www.theTaskForce.org/reports\\_and\\_research/api\\_study](http://www.theTaskForce.org/reports_and_research/api_study)

*“증오 폭력과 괴롭힘이 커뮤니티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다섯 명 중 한 명에 가까운 응답자가 동양계 또는 태평양계이거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또는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신체적인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국회가 증오 범죄관련 연방 법안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법안 수락 서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 Matt Foreman, National Gay and Lesbian Task Force 사무총장

워싱턴, 5월 10일 - 전국 동성애자 정책조사원 (The National Gay and Lesbian Task Force Policy Institute) 는 오늘 아시아 태평양계(API)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를 대상으로 실시 전국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모아진 자료에 근거한 역사적인 연구 조사인 “*가장자리의 삶: 전국 아시아 태평양계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관한 설문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조사 자료에 의하면 응답자의 75%가 그들의 성적 성향으로 인해 차별 그리고/또는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85%가 그들의 인종 또는 민족으로 인해 차별 그리고 또는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TriKone-Northwest 의 Mala Nagarajan 씨는 “아시아 태평양계로서의 삶은 복잡하고 어려우나, ‘모델 소수계’라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관점에 의해 그러한 부분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사회적 통념을 깨고 우리가 하나의 커뮤니티로 결집할 수 있으며 결집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부각 시키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매트 포어맨 (Matt Foreman) National Gay and Lesbian Task Force 사무 총장은 “증오 폭력과 괴롭힘이 커뮤니티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다섯 명중 한 명에 가까운 응답자가 동양계 또는 태평양계이거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또는 성전환자라는 이유로 신체적인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국회가 증오 범죄관련 연방 법안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법안 수락 서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가장자리의 삶”은 DC 지구를 포함, 전국 38 개 주에 분포되어 살고 있는 863 명의 설문 응답자들의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했으며 응답자들의 지리적 분포는 미국 내 아시아태평양계의 지리적 분포도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 온라인 설문 조사는 2006 년 6 월에서 9 월까지 영어, 중국어, 한국어, 및 베트남어로 실시되었으며 기본적인 인구 통계학적 정보, 차별 그리고/또는 괴롭힘, 정책적 우선 순위, 정치적 성향등에 중점을 둔 다양한 질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워싱턴 D.C., 시카고,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그리고 호놀룰루에 있는 API LGBT 커뮤니티 단체들이 준비한 리스트서브와 웹사이트를 통해 모집 되었습니다. 남아시아계, 태평양계, 한국계, 여성, 성전환자 및 연장자들을 포함 전통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룹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특별한 참여 권고도 있었습니다.

도리나 웡 (Doreena Wong) 로스엔젤레스 API-Equality 의장은 “아시아태평양계 커뮤니티의 크기와 영향력이 커감에 따라 저희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또는 성전환자들은 아시아태평양계라는 그늘에 숨을 수만은 없습니다. 저희는 APL 와 LGBT 커뮤니티 양 쪽에 다 속하고 있으며 저희 커뮤니티를 분열시키는 광범위하고 특별한 이민 개혁 문제, 결혼 금지 제재 문제, 증오 범죄 문제등에 관한 전국적인 토론에 참여하기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주요 작성자인 알랜 당 (Alain Dang) 정책 분석원은 “아시아 태평양계 LGBT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API 커뮤니티내 동성애 혐오자들에 의한 괴롭힘과 LGBT 커뮤니티 내의 인종 차별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광범위하고 특별한 이민 개혁 문제, 어떻게 대중 매체에 비취지는가와 그들 자신과 가족을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등을 염려하고 있습니다”며 “이러한 조사 보고는 입법상의 개입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의 자기 성찰 및 반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주요 조사 자료는 다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거의 모든 응답자(98%)가 살면서 최소 한 번의 차별 그리고/또는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응답자의 75%가 자신의 성적 성향때문에 차별 그리고/또는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85%의 응답자가 자신의 인종 또는 민족 때문에 차별 그리고/또는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 API LGBT 미국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증오 폭력/괴롭힘, 대중 매체의 표현, 평등한 결혼 생활 그리고 이민인 것으로 나타났다
- 거의 모두에 가까운 응답자들(89%)가 전체 API 커뮤니티내에서 동성애 혐오 또는 트랜스젠더 혐오의 문제가 있다고 동의했으며 이에 더하여 응답자의 75%가 API LGBT 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백인 LGBT 커뮤니티내에서 인종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동의했다.
- 67%의 응답자가 2006 년 중간 선거에 투표를 할 것이라고 대답했던 것으로 나타나 API LGBT 들은 정치적으로 매우 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중 약 20%는 투표 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탄원서 서명, 행진 또는 시위 참여, 및 선출된 공무원과 접촉 등 기타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 응답자중 50%만이 영어가 모국어라고 답했으며 만다린(11%), 칸토니즈(8%), 타갈로(6%), 그리고 베트남어(5%) 순으로 모국어를 꼽았다. 거의 모든 LGBT 정보 및 자료들이 영어로 제공되며 동양계 언어로 간행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응답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분포 :

- 응답자들은 중국계(40%), 필리핀계(19%), 일본계 (11%) 와 인도계(10%)를 포함 12 개 이상의 민족 다양성을 보였으며 기타 소수의 베트남계, 한국계, 하와이언, 말레이시아계, 타이 그리고 파키스탄계 등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들 민족적 그룹들은 아시아 또는 태평양 섬을 모국으로 그 독특한 역사, 문화, 그리고 이주의 배경을 가지고 미국 내 살고있는 광범위한 민족 그룹을 의미하는 아시아태평양계(APIs)를 구성하고 있다.
- 응답자중 53%가 자신의 성별을 남성으로 41%가 자신을 여성으로 표시했으며 10%는 트랜스젠더(성전환자)로 표시했다. 응답자중 자신을 “남자” 또는 “여자”로 표시함과 동시에 트랜스젠더(성전환자)에 표시한 경우 양쪽에 모두 포함되므로 전체 숫자의 합이 100 을 넘게 나왔다.
- 응답자의 47%가 자신을 게이(남성동성애자)로 정의했으며 19%가 자신을 레즈비언(여성동성애자)으로 9%가 양성애자로 정의했다. 20%는 스스로를 “퀴어”라고 정의했으며 이들 중 여자가 남자보다 2 배 이상 많았다. 응답자의 5%는 기타를 선택했다.
- 응답자의 삼분의 일이 약속된 사람이 있다고 답했으며 10%가 함께 살고있는 파트너가 있는 것으로 답했다.

“가장자리의 삶: 전국 아시아 태평양계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관한 설문조사”는 오늘 로스엔젤레스에 위치한 아태법률연합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발표됩니다.

Dang 연구원은 “이 보고서는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목소리를 끌어내려는 참여와 격려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해준 전국에 위치한 지역 단체들의 도움이 없이는 가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며 “가장자리의 삶은 우리 모두가 환영 받고 옹호 받을 수 있는 강하고, 활기차고, 다양한 LGBT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각 지역에서 펼쳐지는 노력들에 대한 Task Force 의 지지이며 인종적 경제적 정의를 위한 Task Force 의 오랜 서약의 연속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보고서와 관련 자료는 [www.theTaskForce.org/reports\\_and\\_research/api\\_study](http://www.theTaskForce.org/reports_and_research/api_study)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National Gay and Lesbian Task Force 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그리고 성전환자(LGBT) 커뮤니티의 정치적력 신장 미션으로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반 LGBT 와 관련된 선거를 저지하고 친 LGBT 법안 제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폭 넓은 캠페인을 준비하며 National Gay and Lesbian Task Force 의 활동의 조직적 수용력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하다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조사원은 이러한 활동을 위한 최고의 두뇌집단으로서 평등을 완성시키기 위한 노력을 후원하고 보수파의 거짓말에 맞서기 위한 연구 조사와 정책 분석을 제공하고있습니다. 폭 넓은 사회 정의 활동의 일환으로 인간의 표현과 정체성의 다양함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기회를 창조 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National Gay and Lesbian Task Force 는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있으며 뉴욕, 로스엔젤레스, 마이애미, 미네아폴리스, 그리고 캠브리지에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